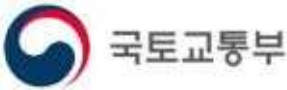



| | | | |
|---|-------|--|--|
|  | | <h1>보 도 자 료</h1> | |
|  | | 배포일시 | 2018. 6. 4(월) / 총 3매(본문 3) |
| 담당 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· 과장 황윤언, 사무관 강치득, 주무관 김동규 · ☎ (044) 201-3351, 3343 |
| 보 도 일 시 | | 2018년 6월 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5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 | |

서울·과천 주택청약 일반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- 위장전입 의심 58건 , 통장매매 의심 2건 등 68건 적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서울·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.
-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디에이치자이 개포, 과천 위버필드, 논현 아이파크,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,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으며,
 -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다.
-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,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(58건)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, 해외 거주* 3건, 통장매매 의심 2건,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하였다.

* 해당 주택건설지역(서울·과천시)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음

-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, 과천 위버필드 26건,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,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.

[주요 불법행위 의심 사례]

- (본인 위장전입 의심) A씨와 A씨 자매는 부모(유주택자)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2일전 동일 ○○시에서 세대분리하여 각각 주택을 공급 신청·당첨되어 공급받음
 - B씨는 본인만 ‘14년부터 ○○시에 거주 신고하여 주택공급 신청·당첨되어 공급받았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인접시(약 10Km)에 거주하고 있어 B씨는 ○○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됨
- (가족 위장전입 의심) C씨는 장인·장모가 C씨가 거주하는 단지의 다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며칠 후 장인·장모의 주소를 C씨의 주소로 세대합가하여 장인·장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됨
 - D씨는 모친, 배우자, 자녀 2명과 같은 세대로 신고하였으나 모친은 동일 자치구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D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 신고된 것으로 의심됨
- (해외거주) E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나 ‘14.6월부터 해외거주중이라고 전화 진술한 바,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*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,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거주하는 것으로 공급 신청·당첨되어 공급받음
 - *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아닌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(서울, 과천인 경우 수도권 거주자)해야 함

-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(특별사법경찰)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,

○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~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.

*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년, 투기과열 지구 주택은 5년,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 제한(주택공급규칙 제65조)

□ 아울러, 국토부는 6.4(월)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하여, “적발된 위반사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강치득 사무관(☎ 044-201-33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